

## 어미 활용의 음운론적 제약과 대응이론

오 정 란

(광운대학교)

Oh, Jung-ran. 1997. A Correspondence Approach to the Phonological Constraints in Korean Ending Inflectio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3. 141-166. In this paper, I examine the inflection of the ending of a word within the framework of correspondence theory(CT). I argue that the functional difference between ending and particle lies in their conjunctive relation with stem and substantive. The one(stem + ending ; inflection) is the relation of opposition, the other(substantive + particle ; declension) is that of fusion. The phonological rules which operate in fusion process don't operate in the opposite one. Rather, morphological preservation is strengthened by inserting '-i-' in inflection. But there are several exceptions in inflection, that is, which undergo fusion process. I argue that they are generated from '-ni-' morpheme which has its semantic function [continuance] and changes opposition process to fusion one. I also contend that the constraint Align plays a crucial role in accounting for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So I suggest i) the ranking in opposition process: ConStr > IDENT-IO(Fi) > IDENT-IO(Ff) > DEP-IO > MAX-IO > Align ii) the ranking in fusion process: ConStr > IDENT-IO(Fi) > Align > IDENT-IO(Ff) > DEP-IO > MAX-IO. Further, I show that '-l' final stem allows neither '-i-' nor '-ni-' regardless of opposition or fusion. The reason is to protect its syntactic transparency from '-li-' or '-la-' irregular verbs. (Kwangwoon University)

### 1. 머리말

교착어인 국어는 어미나 조사에 의하여 용언이나 체언의 문법적 기능이 수행되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어미의 활용과 조사의 곡용에 수반되는 음운현상은 국어에서 규명되어야 하는 주요 사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어미나 조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사면과 의미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음운면에 대해서는 거의 간과되어온 형편이었다. 본고는 격조사 곡용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인 오정란(1996)과 같은 맥락에서, 어미 활용을 제어하는 음운 현상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어미의 활용 양상은 조사의 곡용에 비하여 보다 복잡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문법적 접미사로 동일하게 취급되는 어미와 조사 사이에 실은 상당한 거리가 존재함을 암시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체언의 곡용에 나타나는 격조사들은 다양한 이형태들로 이루어진다.

선행 체언의 발음에 따라 ‘이/가’ ‘은/는’ ‘을/를’ ‘으로/로’ 등으로 상보적 분포를 이루거나, 공동격에서의 예외적 분포형 ‘과/와’와 조격의 다양한 형태 등이 그것이었다. (오정란 1996ㄴ 참조)

용언 활용에 선택되는 어미들은 격조사들에 비하여 그 공통성 추출이 보다 어렵다. 활용에서의 상보적 분포란 ‘으’ 삽입의 유무인데, ‘으’ 삽입의 환경이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 1) 후행하는 어미의 두음이 장애음인 경우에는 선행 어간의 발음에 상관없이 ‘으’ 없이 그대로 활용이 일어난다.

먹 - 고,    먹 - 게,    먹 - 지  
 감 - 고,    감 - 게,    감 - 지  
 길 - 고,    길 - 게,    길 - 지

- 2) 반면, 후행 어미의 두음이 비음인 경우에는 통사적 기능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ㄱ. 연결형 어미의 경우 ; ‘으’ 삽입으로 활용이 일어난다.

먹 - 으며,    감 - 으며,    안 - 으며,  
 먹 - 으니,    감 - 으니,    안 - 으니,

ㄴ. 종결형 어미의 경우 ; 어미 두음의 음소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 ① 어미 두음이 ‘ㄹ’인 경우 ; ‘으’삽입으로 활용이 일어난다.

먹 - 으마,    감 - 으마,    안 - 으마.

- ② 어미 두음이 ‘ㄴ’인 경우 ; ‘으’삽입 없이 활용이 일어난다.

먹 - 니?    감 - 니?    안 - 니?  
 먹 - 나?    감 - 나?    안 - 나?  
 먹 - 네.    감 - 네.    안 - 네.  
 먹 - 노라.    감 - 노라.    안 - 노라.

- 3) 또한 어간 발음이나 어미 두음이 ‘ㄹ’인 경우에도 다양한 활용형이 나타난다.

ㄱ. 어미 두음이 ‘ㄹ’인 경우 ; 선행 어간 발음이 장애음 내지 비음

인 경우에는 ‘으’삽입으로 활용이 일어나나, ‘ㄷ’인 경우에는 ‘으’삽입없이 활용이 일어난다.

연결형	종결형
ㄱ. 먹 - 으려고	먹 - 으리라
감 - 으려고	감 - 으리라
안 - 으려고	안 - 으리라
ㄴ. 날 - 려고	날 - 리라

ㄴ. 어미 두음이 ‘ㄴ’이면서 어간 말음이 ‘ㄷ’인 경우 ; 통사 기능에 상관없이 어간 말음 ‘ㄷ’의 탈락이 일어난다.

	연결형	종결형
/날-니/	나-니,	나-니?
/날-나/	나-나,	나-나?
/날-노라/		나-노라.

이와 같이 음운론적 환경에 의한 체언 곡용의 방법이 이형태에 의한 것이었다면, 용언 활용의 경우는 고정된 이형태 없이 주로 ‘으’삽입 여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견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활용형이지만 만약 이들을 제어하고 있는 음운제약의 발견이 이루어진다면 무질서 속에서 규칙성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불규칙적인 활용형들은 언어제약들의 위계 변경에 의하여 규칙적인 현상으로써 설명력의 강화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대응이론(CT : correspondence theory)의 방법에 의거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 2. 어미 활용의 제어장치

### 2.1. 음절과 대립

이형태에 의한 격조사의 곡용과 ‘으’의 삽입 여부에 의한 어미 활용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는 ‘고정된 형태소 유지’에 대한 정도 차이로 볼 수 있다. 격조사의 경우는 고정된 형태소 유지라는 개념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나, 어미의 경우는 고정된 형태소 유지에 대하여 보다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각 형태소들의 자립성 여부와 관련되고 있다.

어간과 어미 그리고 격조사는 모두 홀로 설 수 없는 의존형태소이다. 그러니 체언은 자립형태소이다. 어미와 격조사는 둘다 동일한 의존형태소로써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접미사이지만, 선행 결합요소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 실제 언어환경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가져 온다. 체언과 연결되는 격조사는 의미 전달상 혼란만 가져오지 않는다면 생략이 자유롭다. (예 : 너 $\emptyset$ 누구 $\emptyset$ 좋아해? 나 $\emptyset$ 철수 $\emptyset$ 좋아해.) 그러나 어간에 연결되는 어미는 결코 생략될 수 없다. “나는 밥을 먹- $\emptyset$ ”이라는 문장은 결코 문장이 아니다. 밥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알 수 없고, 또한 그 시간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곧 용언 활용의 주요 정보는 어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어를 후치적 언어(SOV언어)라고 하는 것이다.

어간과 어미의 이러한 결합성은, 곧 두 요소가 결합될 때 음운환경에 따라 음운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음운변화는 곧 주요 문법 기능을 지닌 어간의 형태소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될 것이다. 음운변화에 대한 제어장치로 선택된 것이 ‘으’의 삽입이라고 해석된다.”

자립적인 체언과 연결되는 조사는 이형태의 선택으로도 원래의 형태소 모습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의존적인 어간과 연결되는 어미는 음운변화에 의한 형태소 변형을 막기 위하여 원 형태소를 고집하게 되고 그것이 ‘으’ 삽입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운론적 과정을 수용하는 조사의 곡용이 체언과의 ‘융합’ 상태라면, 음운론적 과정을 거부하고 원형태의 유지를 도모하는 어미의 형태론적 활용은 어간과의 ‘대립’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국어학사상 단어에 대한 기준에 따라 세가지 분류방법이 있다. 분석주의 체계, 절충적 체계(준종합주의 체계), 종합주의 체계가 그것이다. 여기서 분석적 체계는 조사와 어미를 각각 단어로 인정하는 경우이고, 절충적 체계는 조사만 단어로 인정하고, 어미는 의존적 요소로 보아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합적 체계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독립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절충적 체계에서는 바로 조사와 어미의 이 형이상 차이점을 고려하였던 것이다.
- 2) 어간과 어미 사이의 제어장치로 선택되는 모음이 ‘으’인 것은, 그것이 국어의 가장 무표적 모음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3) 이것은 이병근(1981 : 84-86)에서 제시한 국어 어간이 보이는 교체 조건의 강약과도 연결될 수 있다.

	체언	용언
어간	강	약
어미	약	강

융합과 대립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의미는 오정란(1997)을 참조 바람.

## 2.2. 대립과 '으'의 기능

'국물[궁물], 심리[심니]' 등 체언의 내부구조는 융합상태로써 음성제약인 자음강도제약을 지키고 있는 예이다. '밥을, 고기를 / 떡은, 차는' 등 조사의 곡용도 음운론적 과정을 수용한 융합상태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어미 활용이 융합적 관계라면, '먹-면, 잠-리' 등은 [명면] [잠니] 등으로 발음되어야 할 것이다. [명면] [잠니] 등이 음절 위치에 따른 자음강도제약을 수용한 음성적 표면형이기 때문이다.

자음강도제약은 국어에서 두 자음이 연속된다면 그것은 곧 음절말음과 음절두음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것이다. 똑같은 자음일지라도 음절상 위치에 따라 의미 전달의 기능 부담량에서 차이가 나게 되므로, 음절말음에 비하여 보다 강한 기능 부담량을 요구하는 음절두음은 상대적으로 강한 강도의 음소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음절두음은 강도와 조음위치에 있어서 음절말음을 지배한다는 것이다.<sup>9</sup>

오정란(1995<sub>2</sub>)에서 제시한 자음강도제약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f는 음절말음(final), i는 음절두음(initial), s는 강도(strength)의 약자이다.

## 4) 음절두음의 강도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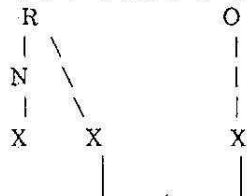
$$Cf(s) < Ci(s)$$

(C)V Cf \$ Ci V(C)의 구조에서 음절두음 Ci는 음절말음 Cf보다 자음강도에서 강하여야 한다.

오정란(1995<sub>2</sub> : 143)에서 제시한 국어 자음의 강도체계를 유성 장애음을 고려하여 수정하면 다음과 같다.

## 5) 국어 자음의 강도체계

## 4) 국어의 강도·위치 강세의 지배관계 (오정란 1993 : 102)



ㄱ. 음절 두음의 강도 강세  $Cf(s) < Ci(s)$

ㄴ. 음절 두음의 위치 강세  $Cf(p) \leftarrow Ci(p)$

활음	유음	비음	유성장애음/마찰음	장애음	경음/기음
1	2	3	4	5	6
/v,w/	/l/	/m,n,ŋ/	/g,d,b,j/ /s,h/	/k,t,p,c/	/k',t',p',c',s'/ /k <sup>h</sup> ,t <sup>h</sup> ,p <sup>h</sup> ,c <sup>h</sup> /

강도 제약의 대표적인 예는 '장애음1+장애음2'의 결합으로 같은 강도가 연결되었을 때 음절두음인 장애음2가 경음화하여 '5<6'으로 조정되는 것을 들 수 있다.

6) 국밥	kuk · pap	----->	kuk · p'ap
	5 = 5		5 < 6
밥국	pap · kuk	----->	pap · k'uk
	5 = 5		5 < 6

동일한 'ㅂ'과 'ㄱ'의 연결체이지만 '국밥'에서는 '밥'의 어두음이 경음화하고 '밥국'에서는 '국'의 어두음이 경음화하는 것은 곧 어두음의 강도강세를 입증하는 것이다.

7) 먹다	mæk · ta	----->	mæk · t'a
	5 = 5		5 < 6
잡다	cap · ta	----->	cap · t'a
	5 = 5		5 < 6

앞에서 든 체언형과 어미활용형들에서 자음들이 연결되면 그 사이에 음운변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음절두음의 강도제약이 그것이다. 강도 제약에 어긋나는 형태는 음절두음의 강도 높이거나 음절말음의 강도 낮추기를 통하여 강도제약을 수용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정란 1995a 참조 바람)

8) 국물	kuk · mul	----->	kuŋ · mul
	5 > 3	강도낮추기	3 = 3
십리	sip · li	----->	sim · li
	5 > 2	강도낮추기	3 > 2
		----->	sim · ni
		강도높이기	3 = 3

융합관계인 명사형에서는 강도제약에 어긋난 강도형이 동격으로 조정되면 (3=3), 제약을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국물[궁물]'은 음절말음의 변형( $\gamma \rightarrow o$ )을 겪었고, '심리[심니]'는 음절두음과 음절말음 모두가 변형을 겪고 있으나( $\gamma \rightarrow o$ ,  $\gamma \rightarrow \gamma$ ), 이 정도의 형태 변화는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대립관계인 어미활용은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먼저 자연상태의 음운과정을 보자.

9) 먹 - 면	mæk · mjæn	----->	mæŋ · mjæn (X)
	5 > 3	강도낮추기	3 = 3
잡 - 리	cap · li	----->	cam · li
	5 > 2	강도낮추기	3 > 2
		----->	cam · ni (X)
		강도높이기	3 = 3

8의 체언형과 달리 9의 어미 활용형은 동일한 음소 결합체이면서도 9의 음운론적인 융합과정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먹면[명면]'의 어간 말음의 변형과 '잡리[잡니]'의 어간말음과 어미두음의 변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립관계인 어간과 어미의 원형태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으'의 삽입이 있게 된다.

10) 먹 - 으 - 면	mæk · i · mjæn	----->	mæ · ki · mjæn (O)
		제음절화	
잡 - 으 - 리	cap · i · li	----->	ca · pi · li (O)
		제음절화	

10에서 '으'의 기능은 어간과 어미의 원형태를 보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5)</sup> 그러나 원형태를 보존하는 대신 기저형에는 없는 '으'가 삽

5) 용언 활용의 중간에 개재하는 '으'에 대해서는 세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으'를 어미의 일부로 보는 견해이니, '-으니, -으며'가 기저형이고 '-니, -며'는 '으'의 탈락형으로 본다. 둘째, '으'를 삽입모음으로 보는 견해이니, '-니, -며'가 기저형이고 '-으니, -으며'는 '으'의 삽입형으로 본다. 이때 '으'가 삽입되는 근거를 최현배(1937: 176-88)는 소리를 고르는 조음소로 보았고, 이승녕(1949)는 자음 충돌로 인한 발음 곤란과 의미 혼란을 막기 위함이라 하였다. 김성화(1992)는 원형태 보존을 위하여 삽입된다고 하여, '으'의 실제 파악에 해안을 열어 주었다. 셋째, '-으니, -으며'와 '-니, -며'는 선행 음절에 따른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각각의 이형태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종결형과 연결형 어미가 동일한 '-니' 형에 대하여 종결형 어미는 '-니'가 기본형이며, 연결형 어미는 '-으니'가 기본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일견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음운론적 설명에서 보다 복잡한 해석을 요구

입되었다는 사실과 형태소 경계와 음절 경계가 어긋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최적성 이론 내지 대응 이론의 원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체언내부에서는 수용되는 '비음·비음(강도 3 = 3)'의 강도상 동격 연속체가 어미활용에서는 수용되지 못하고 있음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11) 가. 감 - 면	kam · mjən (X)	
	3 = 3	
감 - 으 - 면	kam · i · mjən	-----> ka · mi · mjən(O)
		재음절화
나. 안 - 면	an · mjən (X)	
	3 = 3	
안 - 으 - 면	an · i · mjən	-----> a · ni · mjən (O)
		재음절화
다. 안 - 니	an · ni (X)	
	3 = 3	
안 - 으 - 니	an · i · ni	-----> a · ni · ni (O)
		재음절화

11의 예들은 대립관계의 어미 활용에서 발생하는 자음 연속체에게는 'Cf(s) < Cf(i)'의 강도제약이 엄격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것은 각 형태소들의 독자성을 위한 대립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음합과 대립의 구조에 따른 자음강도제약의 강약은 다음과 같이 규칙화할 수 있다.

## 12) 수정된 음절두음의 강도제약

### i) 대립관계에서의 자음강도제약

$$Cf(s) < Ci(s)$$

### ii) 음합관계에서의 자음강도제약

$$Cf(s) \leq Ci(s)$$

자음강도제약 i)은 대립관계에서는 음절두음이 음절말음보다 강할

하는 것이다. 한 예로 종결형의 '-으마'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그러므로 대립과정에서의 '으'의 기능은 원형태 보존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삽입모음으로 간주함이 타당할 것이다.



것을 요구하며, 반면 ii) 융합관계에서는 다음의 강세를 요구하되 동등 강세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원형태 보존, 삽입, 경계 변경이라는 세가지 언어제약 사이의 역동적 관계 파악이 활용과 곡용 사이의 거리를 밝히는 관건이라는 점이다. 9)는 원형태 보존이라는 언어제약을 어기고, 10)과 11)은 삽입과 경계변경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어미 활용에서 10)의 표면형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은 이들 제약들 사이에 우선 순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최근의 최적성이론(OT: optimality theory) 내지 대응이론(CT: correspondence theory)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후술도겠지만 삽입문제는 최적성 이론의 삽입금지(Fill) 제약은 대응이론의 DEP-IO 제약으로 대체될 것이다. 경계변경 문제는 두음제약(OnSet)과 정렬제약(Align)으로 표현된다.

### 2.3. '-느-'의 [연속성]과 융합기능

지금까지 대립관계인 어미활용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보존을 위하여 '으'가 선택됨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어미활용의 경우에도 대립관계가 아니라, 융합적인 음운과정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

13) 가. 먹 - 는다	mək · ninda	----->	məŋ · ninda (O)
	5 > 3	강도약화	3 = 3
먹 - 으 - 는다	mək · i · ninda	----->	mə · ki · ninda (X)
		재음절화	
나. 잠 - 는다	cap · ninda	----->	cam · ninda (O)
	5 > 3	강도약화	3 = 3
잠 - 으 - 는다	cap · i · ninda	----->	ca · pi · ninda (X)
		재음절화	
다. 감 - 는다	kam · ninda (O)		
	3 = 3		
감 - 으 - 는다	kam · i · ninda	----->	ka · mi · ninda (X)
		재음절화	

이들은 융합적인 체언 내부의 음운과정 8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3에서 발견되는 공통적 특성은 어미의 두음이 '-ㄴ-'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 중에서 연결형과 종결형이 동

일한 ‘-니’와 ‘-나’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 어미들은 연결형에서는 ‘으’를 가진 ‘-으니’와 ‘-으나’로 활용하고, 종결형에서는 ‘으’없이 융합적인 음운과정을 거치고 있다. 즉 통사적 기능 차이에 따라 대립과 융합으로 나뉘어지는 양상을 보여 준다.

14)	‘-니’	‘-나’
ㄱ. 연결형	먹 - 으니	먹 - 으나
	감 - 으니	감 - 으나
	안 - 으니	안 - 으나
ㄴ. 종결형	먹 - 니?	먹 - 나?
	감 - 니?	감 - 나?
	안 - 니?	안 - 나?

14의 ㄱ과 ㄴ은 ‘-니’와 ‘-나’가 표면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의미론적·통사론적으로는 상이한 것들을 보여 준다.

14의 ㄱ 연결형은 연결형 ‘먹-으면, 먹-어서...’ 등과 같은 대립관계의 연속형 어미이지만, ㄴ 종결형은 융합적 음운과정을 밟고 있다. ‘먹-는다[먹는다]’, ‘먹-는다[먹는다]’, ‘먹-니[명니]’에서 융합적 음운과정을 유발시키는 요소는 ‘-니-’인데 이들 사이에 의미론적 공통성이 발견된다.

김성화(1992)는 ‘-느-’를 추출하여 그 의미기능을 동사 현재시에서는 ‘작동성’을 나타내며, 동사 과거시와 미래시 그리고 형용사의 과거시와 미래시에는 ‘사실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먹-느나’에서 ‘먹-’에서 어간말음 ‘ㄱ’의 비음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으’를 삽입하면 [먹으느나]가 되는데, 이는 ‘-으느-’라는 약모음 중복을 초래하며 이 약모음 중복은 불안정한 음성실현이라는 것이다. 이 불안정한 음성실현을 피하기 위하여 ‘으’가 삽입되지 않으며, 그 결과 ‘먹-느나’는 [명느나]로 비음화하여 어간말음의 형태소가 변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약모음 ‘으’의 연속은 회피되는 음성 연속체라는 그의 견해가 맞다면 다음의 현실 음성형들은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15) ㄱ. 먹 - 므로	먹 - 으 - 므로
감 - 므로	감 - 으 - 므로
안 - 므로	안 - 으 - 므로
(X)	(O)
푸르르다	누르르다

‘푸르르다·누르르다·파르르하다’ 등에서 약모음 ‘으’와 자음 중에서 강도가 가장 약한 ‘르’과의 결합체 ‘-르르-’가 엄연히 사용되고 있는 음성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약모음 중복의 불안정한 음성실현을 기피한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미 두음 ‘-ㄴ-’과 관련된 예외적인 융합현상은 ‘-ㄴ-’의 의미론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떡-는다’, ‘떡-니?’, ‘떡-나?’에서 어미의 공통요소 ‘-ㄴ-’이 나타내는 의미특성으로는 용언 어간의 동작이나 상태가 발화 당시에도 연속 상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떡-니’와 ‘떡-나’는 ‘떡-느냐’에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ㄴ-’의 음절적 기본형은 ‘떡-는데’의 ‘-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느-’ 혹은 ‘-ㄴ-’의 이러한 의미특성은 [연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연속성]이라는 의미특성이 대립관계인 어간과 어미의 결합관계를 융합관계로 바꾸는 것은 의미적 특성이 통사론적·음운론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로 평가할 수 있다.

기실 ‘-ㄴ-’ 혹은 ‘-느-’의 이러한 특성은 국어사적 언어 현상의 남겨진 조각으로 추정된다. ‘-느-’의 원형은 중세국어에서 시상을 표현하던 선어말 어미 중에서 현재 계속형을 나타내는 ‘-느-’로 추정된다.<sup>6)</sup>

#### 16) 沙彌 사모려 흥는다 홀썬 (석보상절 6.2)

중세어에서 현재 시상의 선어말 어미 ‘-느-’와 평서문의 정동사 어미 ‘-다’의 결합인 ‘-는다’는 근대국어에 와서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ㄴ다’로, 자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서는 ‘-는다’로 변하였다.

#### 17) 간다 하여 (삼역총해 2.9) 드러를 늦는다 흥느니라 (박통사언해 중 33)

이 중 ‘-ㄴ다’는 16세기 문헌에도 간혹 보이지만 ‘-는다’는 17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기문 1972 : 163, 212-213) 13과 14의 중

6) 중세국어의 시상 선어말 어미로는 현재의 ‘-느-’, 과거의 ‘-거-’, ‘-아/어-’ 및 ‘-더-’, 미래의 ‘-리-’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어미는 시제보다는 상을 나타내었다. ‘-느-’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동작, ‘-거-’, ‘-아/어-’는 과거에 완료된 동작, ‘-더-’는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동작의 회상, ‘-리-’는 미래에 일어날 동작의 추측 등을 의미하였다. (이기문 1972 : 163) ‘-느-’의 현재 계속성은 곧 [연속성]이라는 의미 특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결형 예들이 이들의 변천 결과인 것이다. 현재 계속형 시상은 [연속성]이라는 의미특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것은 대립관계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융합관계로 전환시켜 주며, 그 결과 그들 사이에는 음운론적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느-’의 융합기능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예로써 ‘안-다’의 경음화와 ‘안-느-다’ 유성음화 현상이 있다. 음운론적 환경은 똑같은 ‘-느’ 뒤이지만 전자의 ‘-다’는 경음화되고 후자의 ‘-다’는 유성음화한다. 어간 말음 ‘-ㄴ’의 경우도 동일하다.

#### 18) 용언의 경음화의 유성음화

	기본형	현재형
‘포옹의 뜻’	안다[ant’a]	안는다 [anninda]
‘洗의 뜻’	감다[kamt’a]	감는다[kamninda]

기본형 ‘안다, 감다’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를 보존시키려는 대립관계로 결합된 것이다. ‘-느’이나 ‘-ㄴ’ 뒤의 ‘-다’는 유성적 환경에서 유성음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그대로 두면 유성음화할 것이다 이것은 ‘3<5’의 강도 차이를 ‘3<4’로 약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어간과 어미의 변별성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 약화과정에 저항하여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보존을 위하여 선택되는 것이 강도 차이의 강화이며, 곧 어미의 경음화인 것이다. 경음화는 ‘3<5’의 강도체계를 ‘3<6’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반면 현재형 ‘안는다, 감는다’는 어간 ‘안-, 감-’이 [연속성] 어미 ‘-느-’와 결합되어 융합화한 경우다. 융합관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음운과정을 허용하므로 유성음화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 i) 어간과 어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관계로써 그것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오’이다.
- ii) 그러나 [연속성] 어미와 연결되면 대립관계는 융합관계로 전환되며, 융합관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음운과정을 겪게 되므로 ‘오’의 삽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3. 대응 이론과 어미 활용

지금까지 대립과 융합이라는 두 기준으로 어미 활용의 다양성이 규획될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규칙성을 지배하는

여러 음운제약들이 존재하며, 제약들 사이에도 우선 순위가 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미 활용에 대응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규명이 가능하리라 보아, 대응이론에 의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3.1. 최적성 이론과 대응 이론

대응 이론(correspondence theory ; McCarthy and Prince 1995)은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 ; Prince and Smolensky 1993, McCarthy and Prince 1993a, McCarthy and Prince 1993b)에서 좀 더 발달된 이론이므로 대체로 공통성을 가지지만 몇 가지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대응이론과 최적성 이론의 공통점은 음운규칙과 그 규칙 적용에 따른 도출과정에 의거하는 종래의 음운 분석 방법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음운 제약과 그들 제약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론에서 제약은 위배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최적성 이론에서의 제약은 지키기 위해서 혹은 위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들 사이에는 순위(rankings)가 있어서, 상위제약을 위배한 입력형은 하위제약을 위배한 것보다 별점이 높아지므로 최적형 선택에서 탈락시키는 평행적인 방법(parallel mode)에 의지하고 있다."

대응이론과 최적성 이론과의 차이점은 대응이론이 입력형과 출력형 사이의 '대응(correspondence)'을 주시한다는 점이다. 최적성 이론에서는 최적형 선택시 출력형만 고려되었으나, 대응이론에서는 입력형과 출력형의 동일성 여부를 고려하여 최적형을 선택하고 있다.

McCarthy and Prince(1995)가 제시한 입력형과 출력형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기본 모델은 다음과 같다.

#### 19) 대응 이론의 기본 모델

입력형 : /Af<sub>RED</sub> + Stem/

#### 7) 최적성 이론의 기본 원리 :

- i) 위배가능성(violability) : 제약은 위배될 수 있으나, 최적형의 결정은 최소한의 위배정도에 따른다.
- ii) 순위(rankings) : 제약들은 개별 언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 iii) 포괄성(inclusiveness) : 제약 위계에 따른 후보 분석은 구조상의 적격성을 고려하여 용납된다. 특수규칙이나 보수전략(repair strategy)은 없다.
- iv) 평행성(parallelism) : 제약 등급에 의한 최적형 선택은 출력형 후보 전체를 비교하여 결정한다. 순차적인 도출은 없다.

$$\begin{array}{c}
 \uparrow \downarrow \text{ I-O Faithfulness} \\
 \text{출력형 : } R \rightleftharpoons B \\
 \text{B-R Identity}
 \end{array}$$

19에서 요구되는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된다.

20) 대응(McCarthy and Prince 1995 : 14)

두 연쇄  $S_1$ 과  $S_2$ 에서,  $S_1$ 의 요소와  $S_2$  요소 사이의 관계를 대응(correspondence)이라고 한다.

요소  $\alpha \in S_1$ 과 요소  $\beta \in S_2$ 들이  $\alpha R \beta$ 일 때 서로의 대응소(correspondents)라고 부른다.

대응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최적성 이론의 충실성 제약(faithfulness constraints)<sup>8)</sup>은 입력형·출력형 동일성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보다 구체화된 제약으로 발전된다.

21)	최적성 이론		대응 이론
	Parse <sup>seg</sup>	----->	MAX-IO
	Fill	----->	DEP-IO
	Parse <sup>fea</sup>	----->	IDENT-IO(F)

대응 이론의 세가지 제약(21)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22) 대응 요소에 대한 제약들

- i) 극대화 제약군(the Max Constraint Family) ; 입력형의 모든 분절음은 출력형에 그 대응소를 가진다.(탈락금지)
- ii) 종속 제약군(the DEP Constrsint Family) ; 출력형의 모든 분절음은 입력형에 그 대응소를 가진다.(삽입규칙)
- iii) 자질 동일성 제약군(the IDENT(F) Constraint Family) ; 입력형과 출력형의 대응되는 분절음들은 자질 [F]에 대하여 동일한 자질값을 가진다.(자질 변경 금지)

즉, MAX와 DEP 제약군들은 분절음 영역에서 기능하고, IDENT(F)

8) 충실성 제약(faithfulness constraints)에는 두 가지가 있다.

i) 매핑 (Parse<sup>seg</sup>) : 입력형의 분절음은 음절구조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탈락금지)

ii) 채움(Fill) : 음절 내의 위치들은 입력형의 분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삽입금지)

제약군들은 자질 단계에서 기능하는 것이다.

국어 어미활용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형태소 보존'이라는 개념은 곧 해당 분절음의 '자질 동일성'으로 대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최적성 이론이 아닌 대응이론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하고자 한다.

### 3.2. 언어 제약과 제약 순위

1. '먹-니?'가 \*[먹니] 아닌 [멍니]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강도제약이 자질동일성 제약보다 상위 제약임을 보여 준다. \*[먹니]는 자질동일성 제약은 지키고 있으나 자음강도제약을 어겼으므로 최적형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멍니]는 어간 말음에서 자질동일성 제약을 위배하였지만 보다 상위계약인 자음강도제약을 지켰으므로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 23) '먹-니'의 최적형

ㄱ ConStr >> IDENT-IO(F)일 때

mək · ni	ConStr	IDENT-IO(F)
mək · ni	*	
mən · ni		*

ㄴ IDENT-IO(F) >> ConStr일 때

mək · ni	IDENT-IO(F)	ConStr
mək · ni		*
mən · ni	*	

그러므로 자음강도제약과 자질동일성 제약 사이의 위계는 24)와 같이 정리된다.

#### 24) ConStr >> IDENT-IO(F)

2. 자질동일성 제약은 다시 음절두음 동일성 제약 IDENT-IO(Fi)와 음절말음 동일성 제약 IDENT-IO(Ff)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먹-니[멍니]'와 '날-니[나니]'의 예를 보자.

동일한 음합관계인 종결형 어미 '-니'와의 결합에서 '먹-니'는 [멍니]로 발음되지만, '날-니'는 자연스러운 음운과정의 결과인 \*[날리]가 아니라 어간 말음 'ㄹ'이 탈락된 [나니]로 발음된다. 여기서 최적형으로 선택된 [멍니]와 [나니]는 모두 어간 말음은 변형되었지만 어미 두음

‘-니’의 자질동일성은 유지된 경우이다. 반면 어간 발음의 동일성은 지키고 있으나 어미 두음의 자질이 바뀐 \*[날리]가 비적격형임은 곧 음절 위치에 따른 자질 동일성 제약에 위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절두음과 발음의 자질 동일성 제약은 두음에 대한 제약이 보다 상위 제약이다.

#### 25) IDENT-IO(Fi) >> IDENT-IO(Ff)

3. ‘날-니’가 어미 두음의 자질동일성을 지키기 위하여 희생한 언어제약은 탈락을 금지하는 극대화 제약(MAX-IO)이다. 그러므로 극대화제약은 자질동일성 제약보다 하위제약임을 알 수 있다.

#### 26) IDENT-IO(Fi) >> IDENT-IO(Ff) >> MAX-IO

4. 그러나 여기서 환기하여야 하는 사실이 있다. 대립관계의 어미 활용에서 어간발음과 어미 두음의 자질 동일성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되는 것은 어간발음의 탈락이 아니라 ‘으’의 삽입이라는 사실이다. ‘먹-며’[미으며], ‘먹-럼’[먹으럼] 등, [먹으며] [먹으럼] 따위는 ‘먹-며’가 \*[명며]로, ‘먹-럼’이 \*[명럼]으로 자질동일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입력형에 없는 ‘으’를 삽입시킨 것이다. 이는 삽입을 금지하는 종속제약(DEP-IO)를 위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DEP-IO는 자질동일성 제약보다 하위 제약임을 알 수 있다.

#### 27) IDENT-IO(Fi) >> IDENT-IO(Ff) >> DEP-IO

5. 대립관계의 어미 활용이 형태소 보존을 위하여 취하는 제약 중, 극대화제약과 종속제약 사이의 위계 설정을 위하여 ‘날-니’[나니]의 예를 다시 보도록 하자.

기실 ‘날-니’의 어간 발음과 어미 두음이 자질동일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어간 발음 ‘ㄴ’의 탈락과 ‘으’의 삽입이 그것이다. 대립관계의 용언 활용이 ‘으’ 삽입으로 이루어졌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날-니’는 대립관계(연결형)에서도 ‘으’의 삽입이 거부되는 경우이다.

28) ‘날-니’      융합(종결형) : 새가 나니?

                  대립(연결형) : 새가 나니, 꽃잎이 떨어진다.



‘ㄴ’과 ‘ㄹ’의 직접 연결은 그들 사이의 특수한 결합성으로 인하여 [ㄹ·ㄴ]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것은 양방향적인 것으로 필연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ㄴ’과 ‘ㄹ’의 결합시에는 자음강도제약(CS) 대신 음성제약(PC ; Phonetic Constraint)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9) 음성제약 (PC : Phonetic Constraint)

‘ㄴ’과 ‘ㄹ’의 결합은 [ㄹㄴ]로 융합되는데, 이는 양방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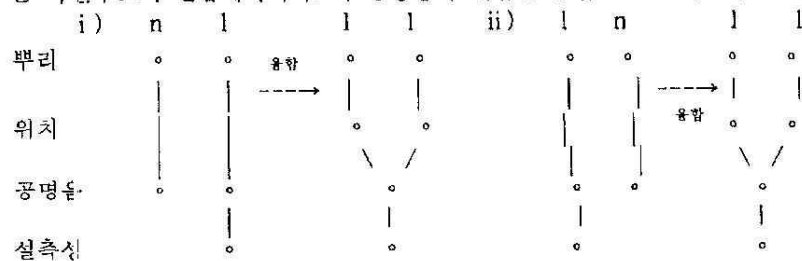
‘ㄴ·ㄹ’과 ‘ㄹ·ㄴ’은 PC를 위배하는 형태이며, ‘ㄹ·ㄹ’은 PC를 만족시키는 형태이다. ‘으’ 삽입없이 음운론적 과정을 수용하는 융합관계인 종결형에서의 ‘날-니’는 ‘ㄹ’과 ‘ㄴ’ 자질구조의 특수한 결합관계에 의하여 ‘ㄹ·ㄴ’은 필연적으로 [ㄹ·ㄴ]로 융합될 것이다.(오정란1995-1)” 그러나 그 결과인 \*[날리]는 음절두음의 자질변형을 초래하므로, 자질변형의 원인이 되는 어간 말음 ‘ㄹ’의 탈락으로 어미 두음의 형태보존을 꾀하는 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으’의 삽입으로 어간과 어미의 자질 동일성을 꾀하는 대립관계인 연결형에서도, ‘날-니’는 ‘으’의 삽입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날-니’에 ‘으’가 삽입되면 [날으니]가 되어 어간과 어미의 자질 동일성 제약은 충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의 삽입이 거부되는 이유를 김성화(1992 : 114-115)는 약음소 중복이라는 부자연스러운 음성실현을 타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부자연스럽다는 약음소 중복 [-르-]가 사실은 용언 어간의 한 요소로 선호되는 음성형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해석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30) ㄱ. 소위 ‘러’ 변격 용언

9) 소위 ‘[GP의 ‘n → l % l’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구조의 비밀은 “[설측성]의 명세는 위치마디의 미명세를 내포하며, 위치마디의 명세는 [설측성]의 미명세를 내포한다”는 자질구조의 결합제약이다. 이 양방향적 결합은 융합으로 표시된다.



동 사 : 이르다 (至)

형용사 : 푸르다, 누르다

ㄱ. 소위 '르' 변격 용언

동 사 : 가르다, 나르다, 고르다, 구르다, 누르다, 오르다...

형용사 : 게으르다, 그르다, 다르다, 바르다, 빠르다, 이르다...

30ㄱ)의 예들은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 등으로 활용하며, 30ㄴ)의 예들은 '갈라, 날라, 골라, 놀라 ... 게올라, 달라, 빨라, 일러...' 등으로 활용한다. 더욱이 '-니'어미와 연결되면 '이르니, 푸르니, 누르니...', '가르니, 나르니, 고르니 ... 게으르니, 그르니, 다르니, 빠르니...'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것은 '날-니'의 가상적인 '으' 삽입형 '나르니'와 동일형태인 것이다. '러' 혹은 '르' 변격 용언과 같은 활용형을 '날-니'에 허용한다면 이 현상은 연쇄적으로 '날다'의 전 활용영역에 확대될 것이다. 아마도 수효가 적은 '러'변격 용언 보다는 보다 다수인 '르'변격 용언에 합류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나르느] [날라] 등의 활용은 '날다'라는 단어 고유의 형태를 '나르다'로 변용시킬 충분한 소지가 된다. 여기에서 원형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연결형에서도 '으'의 삽입을 금지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즉 통사적 투명성(syntactic transparency)을 위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간 말음이 '르'인 경우에는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갈다, 울다, 골다 ... 길다, 달다, 멀다...' 등은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연결형이나 종결형)와 연결되면 어간 말음 '르'의 탈락을 겪고 있다. '가니, 우니, 고니 ... 기니, 다니, 머니...' 등.

이 통사적 투명성이란 동인은 과거시제와 연결되면 더욱 분명해져진다 '날-았-'에 '-니'와 '-나' 어미가 연결된 모습은 다음과 같다.

- 31: '날-았-' / 연결형 : 새가 날았으니, 꽃이 떨어지지.  
 \ 종결형 : 새가 날았니? (날았으니? X)  
 / 연결형 : 새가 날았으나, 꽃이 떨어지지 않았다.  
 \ 종결형 : 새가 날았나? (날았으나? X)

즉 어간 말음 '르'과 어미 두음 'ㄴ'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들어가 '르'과 'ㄴ'의 연속을 피하게 되면, '-니'와 '-나'의 어미들은 기타 다른 어미들과 같은 활용을 하는 것이다. 대립관계(연결형)에서는 '으'의 삽입을, 융합관계(종결형)에서는 음운론적 과정을 수용하고 있다.

다시 극대화 제약과 종속 제약 사이의 위계 설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날-니'의 자질동일성 제약을 충족시키는 두 출력형 [나니]와 [나르니]의 선택에서 [나니]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는 사실은 종속제약이 극대화제약보다 상위 제약임을 보여 준다. [나니]는 어간말음을 탈락시켜 극대화제약은 어긴 반면, 삽입을 금지하는 종속제약은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나르니]는 극대화제약은 지키고 있지만 종속제약을 어기고 '으'를 삽입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두 제약 사이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

### 32) DEP-IO >> MAX-IO

6. 지금까지 제시된 제약들의 위계 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orStr >> IDENT-IO(Fi) >> IDENT-IO(Ff) >> DEP-IO >> MAX-IO

그러나 이 제약 위계만으로는 '먹-'의 연결형 [머그니]와 종결형 [멍니?]를 구분할 수 없다. [머그니]와 [멍니?]는 또 하나의 제약인 정렬 제약(Align)의 순위 차이이기도 하다.

융합관계인 종결형 [멍니?]는 음절말음의 자질동일성을 어기면서도 어간 경계와 음절 경계의 일치(정렬)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융합관계의 어미활용에서 정렬제약은 음절말음 자질동일성제약 보다는 상위 제약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대립관계인 연결형 [머그니]는 '으'의 삽입으로 정렬제약을 위배한 형이 최적형으로 선택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립관계의 어미활용에서 정렬제약은 가장 하위의 제약임을 알 수 있다.

### 33) ㄱ. 병립관계의 언어제약

ConStr >> IDENT-IO(Fi) >> IDENT-IO(Ff) >> DEP-IO >> MAX-IO >> Align

#### ㄴ. 융합관계의 언어제약

ConStr >> IDENT-IO(Fi) >> Align >> IDENT-IO(Ff) >> DEP-IO >> MAX-IO

(‘ㄱ’과 ‘ㄴ’의 결합에서는 ConStr 대신 PhoCon로 대체되어야 한다.)

즉, 병립과 융합의 어미활용의 상이점을 대응이론에서는 Align의 위

계 변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33ㄱ)과 33ㄴ)의 위계의 타당성 여부를 어미활용의 예들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 3.3. 대응이론과 어미활용

#### 3.3.1. 대립의 어미활용

‘-느-’는 의미특성 [연속성]으로 인하여 어간과 어미의 관계를 융합적으로 만드는 어미 형태소이다. ‘-느-’와 결합된 어미들은 융합과정을 밟고, 그렇지 아니한 어미들은 대립의 어미활용을 하게 된다. 대립의 어미 활용은 ‘ConStr >> IDENT-IO(Fi) >> IDENT-IO(Ff) >> DEP-IO >> MAX-IO >> Align’의 제약 순위로써 최적형을 판단하게 된다.”

#### 34) ‘먹-니’ (연결형)의 최적형”

mæk + ni	CS	ID-Fi	ID-Ff	DEP	MAX	Align
mæk · ni	* !					
mən · ni			* !			
mə · ki · ni				*		*

[먹느니]는 비록 ‘으’의 삽입으로 DEP를 어기고, 어간 형태소 경계와 음절 경계가 일치되지 않아 Align을 어기고 있으나, 이들 제약이 [먹니]나 [멍니]가 위배한 CS나 ID-Ff 제약보다 하위의 것이기 때문에 최적형으로 선택되고 있다. 연결형 어미 ‘-니’는 [연속성]의 ‘-느-’와는 상관이 없는 형태소이다.

#### 35) ‘먹-마’(종결형)의 최적형

mæk + ma	CS	ID-Fi	ID-Ff	DEP	MAX	Align
mæk · ma	* !					
mən · ma			* !			
mə · ki · ma				*		*

10) 도표의 공간제한상이 제약순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CS >> ID-Fi >> ID-Ff >> DEP >> MAX >> Align

11) 대립관계의 강도제약은 음절 두음의 말음에 대한 강도 강세 ‘Cf(s)<Ci(s)’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입력형에서 음운변화를 겪은 출력형에 대해서는 완화된 제약 ‘Cf(s)≤Ci(s)’에 의하여 위배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먹으마]가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것도 [먹으니]와 동격으로 설명될 수 있다. 시 후보형 중에서 가장 부적격형은 [먹마]임을 알 수 있다.

### 36) '먹-리'(종결형)의 최적형

mək + li	CS	ID-Fi	ID-Ff	DEP	MAX	Align
mək · li	* !					
mən · li	* !		*			
mən · ni		* !	*			
☞ mə · ki · li				*		*

'먹-리'의 자음 연결 'ㄱ·ㄹ'은 강도 '6>2'로 강도제약에 크게 어긋난 형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어간 말음의 강도 낮추기가 일어난 [멍리] 또한 강도 '3>2'로 어긋나는 결합형이다. [멍리]에서 어미두음의 강도 높이가 일어난 것이 [멍니]인데, 이것은 두음과 말음의 자질이 변형된 것이다. '먹-리'는 대립관계이므로 33)의 제약 순위에 따라 보다 하위 제약 DEP와 Align을 어긴 [먹으리]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연결형 '먹-리니'가 [먹으리니]로, '먹-려고'가 [먹으려고]로 선택되면, 종결형 '먹-리라'가 [먹으리라]로, '먹-렴'이 [먹으렴]으로 선택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활용들은 [연속성] '-느-'와 상관이 없는 형태이므로 모두 대립관계의 제약순위에 따르기 때문이다.

### 37) '안-니'(연결형)의 최적형

an + ni	CS	ID-Fi	ID-Ff	DEP	MAX	Align
an · ni	* !					
☞ a · ni · ni				*		*

대립관계의 강도제약은 'Cf(s)<Ci(s)'이므로 입력형이 그대로 반영된 [안·니]는 가장 상위인 강도제약을 위배한 형태이다.

[안으니]는 DEP와 Align을 어겼지만 이들 두 제약이 CS의 하위제약이므로 최적형으로 관정되는 것이다. 연결형[안으나]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 38) '안-마'(종결형)의 최적형

an + ma	CS	ID-Fi	ID-Ff	DEP	MAX	Align
an · ma	* !					
☞ a · ni · ma				*		*

‘안-니’[안으니]와 마찬가지로 ‘안-마’[안으마]도 강도제약의 엄격한 지배관계를 위배하지 않기 위하여 ‘으’ 삽입형을 최적형으로 선택함을 알 수 있다. 강도제약의 엄격한 적용은 어간과 어미의 각 형태소를 분리시켜서, 연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융합현상(형태소 단위의 독자성 약화)을 방지하여 대립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다’ 등 어미 활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39) ‘안-리니’(연결형)의 최적형

an + lini	PC	ID-Fi	ID-Ff	DEP	MAX	Align
an · lini	* !					
al · lini			* !			
☞ a · ni · lini				*		*

‘안-리니’에서 어간말음 ‘ㄴ’과 어미두음 ‘리’은 음성제약(PC)을 지키기 위하여 [알-리니]로 조정된다. 조정된 [알리니]는 PC는 만족시키지만 이간 말음의 형태소 변형을 가져 온 것이다. 반면 [안으리니]는 ‘으’의 삽입으로 DEP와 Align은 위배하였지만 그들 제약이 PC나 ID-Ff보다 하위제약이므로 최적형으로 판정된다.

### 40) ‘날-니’(연결형)의 최적형

nal + ni	PC	ID-Fi	ID-Ff	DEP	MAX	Align
nal · ni	* !					
nal · li		* !				
na · li · ni				* !		*
☞ na · ni					*	

‘ㄴ, ㄹ’의 결합체인 ‘날니’는 [날리]로 음운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음절두음의 변형을 가져오게 된다. 반면 ‘으’삽입형 [나르니]는 DEP와 Align 제약을 어겼으며, 어간 받침이 탈락된 [나니]는 MAX 제약을 위배한 것이다. 이들 네 출력형들이 어긴 제약 중 [나니]의 MAX 위배가 상대적으로 하위제약이므로 연결형의 ‘날니’는 [나니]로 선택된다. 연결형 ‘날-나’가 [나나]로 됨도 마찬가지이다.

## 41) 'ㄴ-리'(종결형)의 최적형

nal + li	PC	ID-Fi	ID-Ff	DEP	MAX	Align
nal · li						
na · li · li				* !		*

'ㄴ'과 관련된 자음 결합에서 가장 안정된 형태는 'ㄴ · ㄴ'이다. 이것은 'ㄴ' 자질의 내적 특수성에 기인함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러므로 'ㄴ · ㄴ' 결합형 역시 PC제약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DEP와 Align을 어긴 [날으니]는 최적형 판정에서 어떠한 제약도 위배하지 않은 [날리]에 밀리게 된 것이다.

연결형 '날-리니', '날-려', 종결형 '날-리라', '날-리오' 등 'ㄴ · ㄴ' 결합형 대립관계의 활용들도 동일한 음성제약(PC) 적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 42) '날-면'(연결형)의 최적형

nal + mjən	CS	ID-Fi	ID-Ff	DEP	MAX	Align
nal · mjən						
na · li · mjən				* !		*

'ㄴ · ㄴ(2<3)'은 자음 강도를 위시한 모든 제약을 지키는 반면, [날으면]은 DEP와 Align을 어긴 형이다. 그러므로 최적형은 [날면]이다. 종결형 '날-마'의 경우도 동일하게 설명이 된다.

## 3.3.2. 융합의 어미 활용

[연속성]의 의미특성으로 인하여 어간과 어미를 융합화하는 '-느-'어미의 경우에는 융합의 어미활용을 하게 된다. 그 때 적용되는 제약 순위는 'ConStr >> IDENT-IO(Fi) >> Align >> IDENT-IO(Ff) >> DEP-IO >> MAX-IO'이다.<sup>12)</sup>

## 43) '먹-니?'(종결형)의 최적형

12) 도표의 공간 제한상 이 제약순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CS >> ID-Fi >> Align >> ID-Ff >> DEP >> MAX

융합관계에서 적용되는 강도제약은 'Cf(s) ≤ Ci(s)'이다. 'ㄴ'과 'ㄴ'의 결합에서는 CS를 PC로 대체시킨다.

mək + ni	CS	ID-Fi	Align	ID-Ff	DEP	MAX
mək · ni	* !					
mən · ni				*		
mə · ki · ni			* !		*	

Align의 위계변경에 의하여 Align보다 하위 제약 ID-Ff를 어긴 [멍니?]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 44) '안-나?' (중결형)의 최적형

an + na	CS	ID-Fi	Align	ID-Ff	DEP	MAX
an · na						
a · ni · na			* !		*	

[안나?]가 모든 제약을 충족시키는 반면, [안으나?]는 Align과 DEP 제약을 위배하므로 [안나?]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 45) '날-니?' (중결형)의 최적형

nal + ni	PC	ID-Fi	Align	ID-Ff	DEP	MAX
nal · ni	* !					
nal · li		* !				
na · li · ni			* !		*	
na · ni						*

[날니]는 가장 상위 제약인 PC를 어긴 형이므로 탈락되었고, [날리]는 PC를 충족시켰으나 그 대신 어미두음 자질의 변형으로 제외된다. [나니]는 어간 발음의 탈락으로 MAX를 위배하고 있으나, [날으니]가 위배한 Align과 DEP보다 MAX가 하위 제약이므로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그밖에 연속성 '-느-'로 이루어져 어간과 어미의 결합관계를 융합화하는 어미 활용들도 이에 준하여 해석되어 진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대응이론에 의하여 어미 활용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격조사 곡용과 어미 활용의 거리는 체언 혹은 어간과의 결합관계의 차이이다. 격조사 곡용은 체언과의 융합관계이며, 어미활용은 어간과의 대립관계이다.



2. 대립관계는 각 형태소의 독자성을 보다 요구하는 관계이다.
3. 대립관계를 보존시키기 위한 수단은 '으'의 삽입으로 나타난다. 즉, '으'의 삽입은 형태소 보존을 강화시키고, 그 결과 대립관계가 유지 되도록 한다.
4. 어미 활용이 격조사 곡용과 같은 음운론적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은 그것이 대립관계에서 융합관계화하였기 때문이다.
5. 융합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연속성] 어미인 '-느-'이다.
6. '르'를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경우에는 대립이전 융합이전 '으'삽입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리' 변칙 용언이나 '르' 변칙 용언으로 부터 통사적 투명성(syntactic transparency)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7. 대립과 융합을 결정짓는 주요판건은 정렬제약(Align)이다. 제약 위계상에서 정렬제약의 순위 차이가 대립과 융합을 결정지어 준다.
8. 어미 활용을 제어하는 음운제약은 다음과 같다.

ㄱ) 음성제약

i) 자음강도제약(ConStr)

① 대립관계에서의 자음강도제약

$$Cf(s) < Ci(s)$$

② 융합관계에서의 자음강도제약

$$Cf(s) \leq Ci(s)$$

ii) 'ㄹ'과 'ㄴ'의 결합형에서는 자음강도제약은 음성제약(PC : phonetic constraint)으로 대체된다.

ㄴ) 자질 동일군 제약

i) 어두음 자질 동일성 제약 : IDENT-IO(Fi)

ii) 어말음 자질 동일성 제약 : IDENT-IO(Ff)

ㄷ) 종속 제약군 : DEP-IO

ㄹ) 극대화 제약군 : MAX-IO

ㅁ) 정렬제약 : Align

9. 이들 제약 사이의 올바른 위계는 다음과 같다.

ㄱ) 대립 활용에서의 제약 위계

$$\text{ConStr} \gg \text{IDENT-IO(Fi)} \gg \text{IDENT-IO(Ff)} \gg \text{DEP-IO} \\ \gg \text{MAX-IO} \gg \text{Align}$$

ㄴ) 융합 활용에서의 제약 위계

$$\text{ConStr} \gg \text{IDENT-IO(Fi)} \gg \text{Align} \gg \text{IDENT-IO(Ff)} \gg \text{DEP-IO} \gg \text{MAX-IO}$$

## 참고문헌

- 최성화. 1992. "삼입모음 '으'의 기능", 「국어학」 22, 국어학회.
- 오정란. 1993. "국어 음운현상에서의 지배관계",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1, 음운론연구회.
- , 1995ㄱ. "국어 '르'음의 특성과 결합적 제약", 「한국어학」 2, 한국국어학회.
- , 1995ㄴ. "비음화와 비음동화", 「국어학」 25, 국어학회.
- , 1996ㄱ. "연결어미에 나타난 음절강도체계와 형태소 보존 기능",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2, 한국음운론학회.
- , 1996ㄴ. "격조사의 상보적 분포와 최적성 이론", 「국어학」 28, 국어학회.
- , 1997. "후두음화의 실체에 대하여",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 이기문. 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병근. 1981.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 탑출판사.
- 이승녕. 1949. "모음조화연구", 「진단학보」 16, 진단학회.
- 최현배. 1937/1959. 「우리말본」, 정음사.
- McCarthy, J.J. & A.S. Prince. 1993a. *Prosodic Morphology I: Constraint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m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McCarthy, J.J. & A.S. Prince. 1993b. Generalized Alignment, To appear in *Yearbook of Morphology*.
- McCarthy, J.J. & A.S. Prince.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Beckman et al eds., *Papers in Optimality Theory*, Amherst ; GLSA.
- Prince, A.S. & P.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and U. of Colorado, Boulder.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7-1

광운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33-702